

정병석의 경제멘토링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

'두바이가 짧은 기간에 비약적으로 성장한 이유를 경제학 이론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주제는 학생들과 자주 토론하는 경제성장의 핵심 이슈이다. 1958년 세이크 라시드왕은 취임하면서 인구 2만5000명에 불과한 조그만 어촌마을을 가나에서 벗어나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한다. 조개 채취나 물고기 잡는 어업만으로는 가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곳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잇점이 있다는 데에 주목한다. 그래서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적인 물류중심 항만을 건설하는 것이 두바이의 미래 성장기반이 된다는 야심찬 구상을 밝힌다.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인근 산유국의 자본을 끌어들이며 개발을 시작한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 노동 및 기술 등의 생산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두바이에는 성장 추진 당시 세 가지 어느 것도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었다. 두바이는 자기들에게는 결여되어 있는 이런 성장의 핵심 요소들을 외부에서 도입할 수 있게 제도와 정책을 갖추면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해외의 자원을 도입하는데 역점을 두

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강력히 추진하게 된다. 이것이 정치적 리더십의 성과이다. 외자 유치에 위해 소득세·법인세 면제, 외환거래 자유화, 외국기업에 위한 윈스톱 서비스, 공공기관의 24시간 근무지원제 등 가능한 모든 지원조치가 동원된다. 기술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IT, 보건·의료, 귀금속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글로벌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최고 전문가를 유치한다. 자본이 부족하면 외자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만들고, 노동력이 부족하면 해외에서 필요한 인력을 도입하는 제도를 만든다. 자본과 기술 자체보다도 이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제도와 이를 추진하는 리더의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더글러스 노스는 경제 성장에는 자본과 노동보다도 제도의 요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활동에 관한 게임의 규칙이라 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획기적인 이론으로 그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신제도학과로 불리는 그의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제도가 중요한가? 아시아 모굴류는 뛰어난 MIT 경제학 교수가 정

지적 제도와 경제적 제도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를 정리했다.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경제적 제도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규칙에 따라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여 수익이 생기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여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정치적 제도는 민주주의·법치주의를 구현하여 안정된 법질서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제도를 만드는 입법기능과 이를 일관성있게 집행하는 정책까지 포함하여 생각할 수 있다. 두바이의 사례와 같이 경제성장 과정에서는 경제적 제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안정되게 법제도를 시행하며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정치적 제도가 정책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현대 사회는 갈수록 지방화·분권화되어 가고 있다.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 지고 있다. 그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더 많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하다. 광주·전남은 오래 전부터 문화·예술도시로서 특화하여 발전하여 왔다. 서울에서 조금씩 그것을 촉진하는 제도를 갖춰가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양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런데 지금은 이런 지역적 특색이 많이 퇴색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문화예술도시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대건축물같은 하드웨어적인 문화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문화상품 개발에 더 중점을 둔 특화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세계 수준의 문화 예술전문가들을 수시로 초빙하여 시내 곳곳에서 각종 행사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문화예술 친화적인 도시, 문화예술숙박이 높은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찾게 만드는 시도가 중요하다. 문화·예술인 또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지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아이디어로 사람들을 끌어 들일지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사회의 리더들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 이벤트에 접할 기회를 계속 제공하는 등 많은 교육 기회를 만들자. 조금씩 그것을 촉진하는 제도를 갖춰가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양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중고칼럼



일담

내게도 그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다. 헤민스님이 하는 마음 치유 법회에 우연히 참여를 하고서 과거의 무수한 기억들이 그렇게 마음속 깊이 아픔으로 남아 있는 줄 처음 알게 됐다. 고등학교 시절 일이다. 내가 다니던 학교는 사립학교였는데 3학년 때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셨다. 그 교장 선생님은 오시자마자 하루에 한 장씩 8월지도를 감지를 쓰게 했고 매주 월요일마다 전교생을 운동장에 세워 놓고 교원 훈시를 했다. 학교에서 소도임을 하고 있던 나는 4·19를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감지와 아침 훈시에 대한 부당함을 대자보로 적어 학교에 붙이기도 했다. 자취방에 모여 대자보를 쓰고 풀에 본드를 섞으면서 '이거 떼어내려면 고생 좀 하겠다' 우스갯소리를 하며 친구들과는 학교로 향하고 난 입

모든 이들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로 돌아왔다. 다음날 학교는 시끌벅적했다. 대자보 때문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대자보를 붙이고 돌아가던 친구들이 경찰에게 붙잡힌 것이다. 학교에서는 일벌백계한다며 세 명에게는 징학을 한 명에게는 퇴학을 시킨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다. 퇴학을 당하게 될 친구는 나와 같은 반이었다. 수업 중 담임선생님이 불러 함참을 나갔다 돌아온 친구는 선생님과 함께 대종당에서 목욕을 하고 왔다고 한다. 지위를 하던 내년에 복학을 할 수 있으니 퇴학보다는 지위를 하라고 선생님이 권유를 했는데 그 친구는 스스로 뱃땀해서 자퇴할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그 친구는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했던 모든 일을 홀로 끌어안고 퇴학을 당했다. 당당했던 친구는 퇴학조치를 당하고도 학교에 계속 나와 수업을 들었다. 주위에서는 얼마나 같아 했지만 뜨거운 봄 5월이 지나고 여름방학 겨울이 끝날 때까지 학교에 다녔다. 선생님들은 그 친구를 투명인간처럼 대했고 맨 뒷자리 짝꿍도 없는 나무 의자와 책상이 그 친구의 차지였다. 우리는 졸업식장에 밑거투와 명예졸업장을 준비해 친구에게 선물

했고 그렇게 우리의 고등학교 시절은 끝을 맺었다. 20년이 지나서 그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날줄 몰랐다. 출가를 하고 승려생활을 하면서 과거의 인연을 떨쳤다고 생각했는데 내 가슴은 그것이 아픔인 줄도 모른 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수하게 재행무상, 제법무야, 일체계고, 중도, 간화선을 때들면서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조차 보지 않고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그 일이 있던 후 교지 편집장을 하던 나는 설문지를 만들었다. 감지와 교원 훈시, 정학과 퇴학당한 친구들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조사였다. 각 반에 설문지를 돌리고 쉬고 있는데 학과장 선생님이 나를 데리러 왔다. 교무실로 간 나는 학과장 선생님에게 죽도록 맞았다. 1학년 때 담임을 하였던 선생님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맞았을지 모른다. 급히 병원으로 가 입술 12방을 꿰뚫었다. 다음날 교장 선생님이 아버지를 학교로 불렀다. 교장선생님은 내가 대학을 가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교장실을 나와서 아버지는 매점으로 가자며 나를 데리고서 우유와 빵을 사 주셨다. 말없이 우유와 빵을 먹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하신다. 그 교장 선생님 정말 나쁘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하네. 그렇게 뚝뚝처럼 말씀을 흘리고 돌아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처진 어깨가 그렇게 슬프게 보일 수가 없다. 그 기억을 떠올리면 내가 보름빵과 우유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도 같다. 마음치유법회에서 내 파트너로 대화를 했던 참가자는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아픔을 간직하고 산다. 그 아픔은 우리의 의외로 깊은 곳에서 큰 작든 영향을 미친다. 그 아픔을 치유하지 않고서 행복하기란 쉽지 않다. 마음 치유란 그 아픔을 바로 보고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똑같은 무게의 아픔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퇴학을 당한 친구도, 목욕탕에 가서 자퇴 이야기를 꺼내야 했던 담임 선생님도, 나를 구해준 선생님도, 심지어는 학과장 선생님과 교장선생님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14일에 광주에서 헤민스님이 마음치유론 서트를 한다고 한다. 좋은 기회이다. 이런 행사를 통해 많은 중생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백련사 총무스님>

기고



이상표

73년 만에 복원된 광양항과 일본 시모노세키 간 국제 페리항로가 취항 1년여 만에 뜻하지 않은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태, 운항선사의 유동성 위기 등 잇따른 악재로 중단된 지 반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 지역에서는 사업실패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수출 농·어가 및 물류,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운항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그동안 광주·전남권 및 충청권 일부

광양항 카페리운항 재개 빠른 결단 필요하다

에서 생산한 대일 수출 농수산물을 원거리인 부산항까지 육상 운송해 부관페리에 선적해와 그날 선적할 물량을 당일 작업하지 못하고 하루 전에 미리 작업을 해야 하는 등 신선도에 어려움이 많았고 육상운송물류비 절감의 대안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광양항에서 일본 시모노세키항으로 카페리가 취항하면서 부산항 선적 때보다 신선도 유지는 물론 육상운송 시간과 비용을 50% 정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호남 농·어민과 관광업계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대가 컸다. 또한 호남 농·어민들의 염원으로 출발한 한·일 국제 페리 항로가 많은 진보와 시행착오만 남기고 제대로 주지않으면 전남의 농·수산업 발전과 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좌

절이요, 국가장관인 광양항의 이미지에도 흠집이 예상된다. 그러나 광양시는 최근 광양~일본간 카페리 운항 재개 추진 설명회에서 국제 페리 운항 재개에 대한 희망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본 능력과 카페리 운항 경험이 있는 선사를 유치하기 위해 기존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해 사업자 공모를 추진했고, 최종적으로 국내 굴지의 선사와 협상을 하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 선사가 요구하는 지원금 예산 확보방안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아쉽다. 실패의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심사 속도와 수밖에 없다.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시간을 길게 끌 수만은 없는 사안이다. 미망한 선사가 나섰을 때 빠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식품이 방사능 우려가 없는 안전식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한·일 카페리 항로 운항 재개는 호남 농·어민들의 대일 수출 증대와 FTA 체결 확대에 유익하고 있는 전남 농·어업의 활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2013년 '순천 국제 정원박람회'부터 굿즈를 통해 세계에 알리고 K-POP 한류영향을 접목시키면 전남 관광산업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할 기회다. 이는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 줄 큰 먹거리 유산이 될 것으로 제도전환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에 농·수산물의 대일 수출과 전남관광산업의 책임이 있는 전남도와 광양항 활성화에 책임 있는 광양시는 물론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민 모두가 하나 되어 현명한 결단을 내야 할 시점이다. <광양시 힘만도시국장>

사회복지사 안전 위한 가이드라인·보상제도 마련해야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 중 사회복지사의 업무 또한 그 특성상 상당한 노고가 필요한 직업이라 생각된다. 주변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 지인, 친인척들이 적잖은데 업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느 직업이든 각종 애환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사회복지사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정신이상 병력이 있는 분들을 보살피다

가 예기치 못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라고 한다. 예전에 경상북도 포항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받던 사람으로부터 흉기에 찔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절린 사회복지사는 녹막과 पै가 손상됐고, 손목의 근육과 인대, 신경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가 정신병력이나, 혹

은 이런 유사한 질병을 앓은 사람을 상담하고 면담하는 복지업무를 수행할 경우 신변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즉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보상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례관리나 상담 등을 진행할 때 여러 위험적 상황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별도의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회복지사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거나 그 외에 보호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국가 사회복지사 법령으로 만들어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준다면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자발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한 관련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사 업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제도가 시급하다. <▲권희숙·광주시 남구 입촌동

시설

'대형마트 영업 제한' 조례 보완 서둘러야

대형마트 의무휴업조례안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대기업들의 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광주지역 대형마트들도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조속히 상위에 맞게 개정돼야 하고, 확실적인 영업규제보다는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30여 곳이 5개 구청을 상대로 각 지자체의 영업제한 처분에 대해 절차상 위법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남에서도 목포·여수 등 대기업 산하 마트 6곳이 소송을 추진 중이다. 이는 서울 강동·송파구 내 대형마트들이 '영업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영업제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2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즉 상위법

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제한범위를 넘었고, 영업상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상위법을 일부 위반했기 때문이지 전혀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영업제한 자체가 위법 판결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법원의 취지를 곡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조례 시행 후 시장 활성화에 안간힘을 써온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행태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경제민주화 열망을 차단하려는 대기업의 판죽결기'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대로 골목상권을 살려 유통산업의 상생을 꾀하고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회가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획일적 규제보다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사업조정 등 상호 보완하는 전략을 짜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평가자료 감춰두고 진학지도 가능한가

광주지역 고등학교들이 진학지도에 기본이 되는 각종 모의고사 평가 결과를 시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해 불만이 높다고 한다. 이 자료는 그동안 교육청이 수년간 제공해왔던 학교별 최상위 등급 현황으로, 일선 학교에서 진학지도에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 4월 이후 고등학교 1, 2학년 전국 학력평가와 3학년 수능 모의평가 결과 자료 등을 주지 않고 있다. 이 자료는 언어와 수학, 외국어 등 3개 영역 1등급 비율과 학생 수 등 학교 수준을 다른 학교와 비교할 수 있는데다 향상 및 하락의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진학지도에 필수적이다. 또 4월 이전에 제공된 자료도 학교 이름을 삭제함에 따라 평가 취지가 퇴색되고, 일선 학교에선 서로 전화로 성적 결과를 확인하는 등 번잡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시 교육청은 장외국 교육감

취임 이후 고교 1, 2학년 연합평가를 기존 4차례에서 2차례로 줄였으며 일부 학교에서 치러지는 서술 모의고사에 대해 불만이 높다고 한다. 이 자료는 그동안 교육청이 수년간 제공해왔던 학교별 최상위 등급 현황으로, 일선 학교에서 진학지도에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 4월 이후 고등학교 1, 2학년 전국 학력평가와 3학년 수능 모의평가 결과 자료 등을 주지 않고 있다. 이 자료는 언어와 수학, 외국어 등 3개 영역 1등급 비율과 학생 수 등 학교 수준을 다른 학교와 비교할 수 있는데다 향상 및 하락의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진학지도에 필수적이다. 또 4월 이전에 제공된 자료도 학교 이름을 삭제함에 따라 평가 취지가 퇴색되고, 일선 학교에선 서로 전화로 성적 결과를 확인하는 등 번잡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시 교육청은 장외국 교육감

無等鼓

일본 오키나와 본섬 북부에 세계 최고의 장수마을로 알려진 헤노코가 있다. 1500여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마을이 세계적인 관심을 끈 것은 이곳에 사는 듀공 때문이다. 듀공은 몸길이 3m 내외의 포유류로 산호초가 있는 깨끗한 바다에서 해초류만 먹고사는 멸종위기종이다. 2003년 미군이 헤노코 앞바다에 2500m의 활주로 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듀공의 서식지가 파괴될 위험에 처했다. 그러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과 미국 변호사들까지 나서 미국 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이던 람즈펠드와 듀공의 대결로 큰 관심을 끈 소송은 결국 6년만에 듀공의 승리로 끝났다. 전설속의 동물인 인어의 원조도 듀공이다. 헤일드는 모습이 멀시도 보면 마치 인어갈고 5분에 한번 꼴로 수면위로 나와 호흡을 하는 습성 때문에 예부터 선원들은 듀공을 인어로 착각했다.

여수엑스포 주제관에 가면 듀공을 만날 수 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란 여수엑스포의 주제를 멸종위기종인 듀공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주제관은 3개 전시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가장 인기있는 곳은 2관이다. 이곳에 들어서면 와이드 스크린에 듀공이 나타나 관람객들과 생생한 현장 대화를 나눈다. 듀공이 특정 관람객을 지정해 말을 거는 모습을 보고 관람객들은 폭소를 터뜨리면서도 어떻게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지 신기하게 생각한다. 스크린 뒤에 서 한명이 듀공을 조작하고 성우가 목소리로 듀공을 연기하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이다. 이어 메인관에 들어가면 소년과 듀공이 바다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한다는 스토리의 영상과 무대 연기가 펼쳐진다. 듀공을 만날 시간이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 듀공과 대화를 나눌수 있다면 평생 잊지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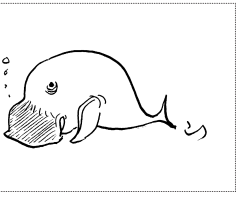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Light (光) and Kwangju Ilbo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publication details, subscription information, and contact numbers for the newspaper.